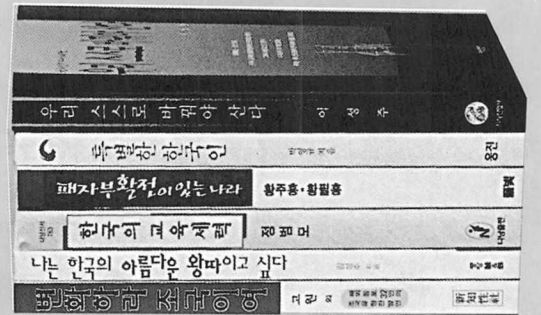


‘추한 한국인’에게 보내는 자성의 메시지

변하지 않으면 미래 없다는 경고 담아...

다양한 필자층 형성하고 있어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신적 혼돈과 도덕적 타락을 질타하는 이 책들은, 그 원인을 가치관과 사상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형평성’을 들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재외동포들도 필자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 귀담아 들을 말이 많다.



올해 들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책의 출간이 부쩍 늘었다. 지난 상반기에 나온 것만 해도 일일이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지은이의 직업과 성향이 아주 다채로워 언뜻 내용이 전혀 다른 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천 년을 맞이해 봄을 이루고 있는 자기성찰류 서적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제목에 ‘한국(인)’ ‘나라’ ‘우리’ ‘조국’ 같은 낱말이 들어 있다. 제목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이런 책들은 주제의식을 공유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날카롭게 지적해

또한, 직·간접으로 지난해 독서계를 주름잡은 이케하라 마모루의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한국인 비판》(중앙M&B)을 언급한 예가 많다.

《한국, 흠어져야 산다》(백산서당)의 김진희씨도 그런 경우다. 김씨는 이런 책들을 묶어 《죽어도》 시리즈라 부른다. 내·외국인이 쓴 한국인론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그의 독후감은 한마디로 “떨떠름” 했다. 여기에 IMF와 함께 닥친 실직의 위기가 자신과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했다.

김진희씨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신적 혼돈과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과 사상이 부재한 때문으로 본다. 다만, 토속신앙과 조상숭배 의식 속에 잠재적 공통분모가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균등성의 확립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제안한다. 사회적·정치적·지역적 균등성과 부의 균등성 확보를 촉구했다. 아울러 다원성과 합리성의 보장을 강조했다.

“생각하는 개인이 성숙한 사회 만든다”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산다》 펴낸 이성주씨

경기도 안성의 죽산으로 이성주씨(59, 사회평론가)를 찾았다. 이씨는 《동아일보》 기자로 출발해 30년간 언론계에서 일했다.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산다》(지식산업사)는 그의 첫번째 저서다.

— 이런 유형의 책이 적지 않은데 집필 동기가 궁금하다.

“국내외 저자들이 쓴 한국인의 행동방식을 비판한 책 10여종을 훑어 봤다. 한국인의 특수한 행동양식의 기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보이지 않고, 하나같이 눈에 드러난 것만 표피적으로 접근했다. 내 나름의 생각을 독자와 나누고 싶어서 책을 썼다. 내 의견에 대한 공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독자 스스로 사고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 근본을 생각하는 태도를 강조했는데...

“그릇된 행동의 유래를 제대로 알아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몰라서 못 고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마저 있다. 예컨대,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양심이 실종된 현실을 개탄하곤 한다.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배양한 적이 없는 우리에게서는 실종될 양심이 없다.”

— ‘정신개조’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작지 않을 듯 싶다.

“서구언론은 사실보도와 양심에 기반한 논평이 중심이다.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계몽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자각해야 한다. 한데 기자들은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노력을 기울여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 이른바 ‘386 세대’를 보는 시선이 긍정적이다. 최근 이들이 빛을 물의는 어떻게 보는가?

“내막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 접대부와 놀아났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반주 삼아 술을 마실 수도 있다. 젊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다. 정의감에 불타 시위도 해 보고, 그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한번 이념에 빠져볼 만도 하다. 그래야 나중에 약자의 처지를 헤아리게 된다. 갈팡질팡한 성장이 더 가치가 있다.”



김씨는 IMF때 구조조정 대상자였던 평범한 건축설계사다. 이런 평범한 이력이 오히려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는지 이 책은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라 있다. 박영규씨도 《특별한 한국인》(웅진닷컴)에서 이케하라 마모루의 책을 꽤 길게 언급한다. 그리고 '책에 실린 글에 대한 비판은 책으로 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이케하라의 견해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성우씨 역시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산다》(지식산업사)를 통해 이케하라 책에 대한 독후감을 피력했다. "한국 독자가 단지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의 모습이 궁금했기 때문에 잘 팔린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 독자들이 미래에 관심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산다》는 감성과 이성의 양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접근한 책이다. 도덕적 양심과 지성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한 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이성우씨는 전직 언론인이다. 이씨같은 각계의 전문가들은 자기성찰류 서적의 주요한 필자다.

변화 없는 미래는 암담해

기업인 김성주씨는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중앙M&B)에서 '왕따'를 자처한다. 하지만 여기서 '왕따'는 아주 좋은 의미다.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부정, 부패가 만연한 한국 시스템을 당당하게 거부하는 왕따"기 때문이다. 김씨는 똑똑한 개인을 바보로 만드는 한국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단언한다.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폴빛)를 함께 집필한 황주홍·황필홍 형제는 둘 다 대학교수다. 황씨 형제는 "천민이 춤을 추고 상민이 노래하는 세상"을 꿈꾼다. 이들 형제가 이런 꿈을 꾸는 까닭은 우리 사회에서 돈 없고, 힘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무시와 멸시와 박대를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낮은 위치의 사람들은 좀처럼 그런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패자부활전'은 예전의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패배한 팀에게 회생의 기회를 줬던 경기방식이다. 이런 취지로 사회적 기회균등을 이루자는 주장을 담았다.

각계 원로들의 조언을 담은 책들도 나왔다. 원로 교육학자 정범모 교수(한림대 석좌)의 《한국의 교육세력》(나남출판)은 교육과 의식의 개혁을 강조한 책이다. 선인들의 자기비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거짓과 협잡, 당쟁과 반목, 명예와 형식의 집착이 반복되는 현상을 개탄했다. 새천년에는 이런 구태를 지양하고 창의력·정직성·의연성·개방성 등을 갖춘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제안한다.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잡을 것인가》(지정)는 '자유지성 300인회'가 개최한 학술 세미나와 조찬모임의 발표원고와 회원들의 기고문을 엮은 것이다. 수록된 23편의 글은 정치외교 분야 8편, 통일안보 분야 6편, 경제사회 분야 9편 등이다. 새천년의 첫해를 맞아 새롭게 출범하는 정치 세력들이 하루 속히 구태를 벗고, 향후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특별한 한국인》 펴낸 박영규씨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후삼국기》 등으로 잘 알려진 박영규씨(36, 책과사람들 대표)가 이번에는 《특별한 한국인》(웅진닷컴)을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는 '한국 사람은 안돼'라는 자조적인 체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 한국인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물론 그런 건 아니다.

"문제없는 나라는 없다. 비유를 들어 말해 보자. 우리 문화를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라 가정하자. 이 나무에 진드기가 잔뜩 끼었다고 농약을 치면 이듬해 진드기는 더 기승을 부린다. 개똥벌레나 풍뎡이, 무당벌레 같은 천적으로 진드기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내 작업은 문화의 풍뎡이를 만드는 일이다."

박영규씨는 우리의 문화를 우리 자신이 지나치게 낮춰 보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 외국인들의 비판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인다. 외국인들이 오만과 독선에 찬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는 데는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서구의 가치를 숭상하는 '서구병'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침성대를 둘러싼 논란을 든다.

"침성대 논쟁은 과학 논쟁이 아니다. 가치관의 대립이다. 침성대가 천문대인 것이 분명함에도 유학을 다녀온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는 주장을 펴다. 자기 문화에 대한 편협이 이보다 더 지독할 순 없다."

박영규씨는 우리 과학자들이 전통과학에 너무 무지하다고 개탄한다. 그는 조선시대의 역사(曆書) 《칠정산내외편》과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술학 가문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내세운다. 또, 그는 자기비하의 치료제로 통일을 언급한다.

"통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 사회가 나아지기 위한 기반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박영규씨는 통일은 신념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이 된다는 신념이 전국민에게 확산돼야 통일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통일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희망을 그는 교육에 걸고 있다. 그의 머리 속에는 2006년 개교를 목표로 한 특성화학교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

라는 국가 원로들의 충정을 담았다. '자유지성 300인회'는 1989년 10월 결성된 모임으로 대학 총·학장, 고위 관료, 변호사, 언론인, 경제계 인사, 전·현직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해외 거주 한국인 또한 자기성찰에 동참했다. 《한국인에게 고함》(미래사)을 통해 재미 변호사 곽철씨는 이른바 한국 대표 지성인들의 작태를 꼬집는다. 그들은 서양 합리주의의 진정한 모습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를 극복하지는 망발을 일삼는다는 것.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런 주장을 유력 일간지들이 여과 없이 내보내 기정사실화한다는 점이다.

재미 칼럼니스트 하동수씨의 《한국인, 밖에서 본 자화상 77》(새한기획 출판부)은 입양아, 지역주의, 불신포조,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대 등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화하라 조국아》(신지성사)는 해외동포 32인의 조국을 향한 생생한 욕성을 담고 있다. 이런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몇권을 제외하곤 자기성찰에 대한 울림은 작은 편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 최성일 기자